

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6. NEW YEAR vol. 007



HELLO,
NICE TO
MEET YOU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6. NEW YEAR vol. 007



2016년, 우리는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만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을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CONTENTS

06 New Year's Address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자기 보람과 미래 비전을 공유합시다!

09 Hello, 2016

특별한 2016년을 시작하다

12 현장24시

남다른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이름을 새기다
공정QC반

16 Ready, Action

동글게 모여 희망을 차올린다, 서울FC

18 Real Sketch

그녀들, 유럽의 심장을 밟다

만나다, 울고, 웃다

22 Dear. Baby

널 보면 심! 쿵! 해!



24 Education 1

성우에서 우릴 부르거든
회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전해라~

26 Education 2

아이고, 신입사원들~
만나서 반갑구만, 반가워요!

28 Special Meeting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창조하는 '이런 만남',
그 의미를 생각하다

30 Column

만남이 운명이다

32 Car Life

자동차, 역대급 콜라보를 시작하다

34 Zoom In

언젠가 겪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상속문제! 기초적인 지식부터 알려드립니다

36 Interview

통증없이 피어나는 풍경을 보다, 화가 정철교

40 Healing Travel

동해남부선, 아침을 여는 기차여행

46 Issue & News

50 Company Song

행복의 기운을 나누다

별을쏘다~☆

발행일 | 2016년 2월 1일 (통권 제7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강현지, 김도형, 김유리,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상정, 박은혜, 손재경,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수영, 황지현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썬 (Tel. 051-623-1906)



성우하이텍 임직원 여러분!

2016년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기술변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100년 기업의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자기 보람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우가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인큐베이터가 되어 지원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어 부가가치가 창출 되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된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스마트 공장 실현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별처럼 쏟아지고, 사랑과 칭찬이 넘치는 참신한 조직만이 매너리즘의 틀을 깨고 문샷싱킹(Moon shot thinking)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훌륭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자기 보람과 미래 비전을 공유합시다!”

아울러 우리 성우가족은 모두 스마트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즐길 줄 알고 스스로 일을 찾아 기꺼이 해내는 성우인! 양심
적이고 투명하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성우인! 지적이면서 겸손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성우인!
이러한 성우인이 바로 성우하이텍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성우가족 여러분!

올해도 소통이 잘 되는 회사, 칭찬으로 보람을 느끼는 회사, 무사고로
안전한 회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성우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고 성우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명근

Let's share our dignity and vision for the future through the balance of work and life!

Dear fellow officers and employees of Sungwoo Hitech!

With the arrival of the 2016 new year, the year of the red monkey, I sincerely wish that health and happiness enters into all of the homes of our Sungwoo family members and hope that all of your wishes are fulfilled this year.

Today, in this modern era of technological revolution, the values of a century old company that we must adhere to are "to share our dignity and vision for the future through the balance of work and life". The company will need to serve as an incubator and provide support so that innovative ideas of our Sungwoo family members can be developed into products. If imagination and ideas become a reality that creates added value, we must create a virtuous circle where we can share in the results together.

Presently, we must recover our competitiveness in production costs by developing ground-breaking technology that surpasses the limitations of stagnant growth and appreciates the importance of a smart factory. We must strive to be a fresh organization that is filled with devotion and praise, an organization that produces creative ideas similar to countless stars based on flexible thinking. This will be the only way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mannerisms, and use moonshot thinking that will enable us to build up an outstanding compan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our Sungwoo family members should all become smart and talented individuals. We want Sungwoo members who know how to enjoy their work and freely search for their own work! Sungwoo members who are conscientious and transparent so that anyone can rely on them! Creative Sungwoo members who are intelligent, modest and who can yield outstanding work results through self-development! Such Sungwoo members are smart and talented individuals who are in harmony with the idea of talent sought out by Sungwoo Hitech.

Dear members of the Sungwoo family!

Let us all work together and continue to strive this year to become a company that communicates well, a company where workers feel appreciated through compliments and praise, a company that is safe with zero accidents and a company that displays innovation through creative ideas!

Finally, I sincerely hope that all our Sungwoo family members homes are filled with untold happiness and fortune and continuous success. Thank you.

Chairman Lee, Myung-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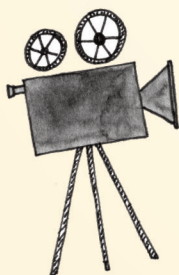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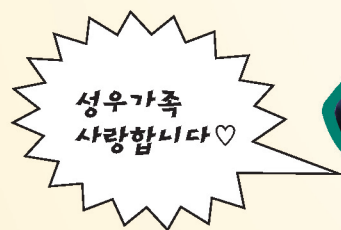




Let's go! 특별한 2016년을 시작하다

성우하이텍은 1월 4일, 서창공장 6층 대강당에서 이명근 회장이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국내외 사업장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시무식에 참석했다. 이명근 회장은 “반갑습니다.”라며 임직원들에게 힘차게 손을 흔들며 대강당으로 입장했다. 임직원들도 덩달아 움츠린 어깨를 펴고, 옆자리 동료와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시무식의 하이라이트는 국내외 사업장, 본부별로 준비한 ‘새해맞이 동영상’ 관람이다. ‘새해맞이 동영상’ 제작은 수년째 임직원들이 준비하는 이벤트이다. 동영상 제작에 앞서 몇 주 전부터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했다. 마치 15초의 미학 광고를 제작하듯, 톡톡 튀는 구성과 웃음 코드를 곳곳에 숨겨두었다. 동영상을 본 이명근 회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라며 격려했다. 성우하이텍은 언제나 임직원과 동행하길 희망한다.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발전과 가정의 평화가 곧 회사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시무식이 끝난 뒤 이명근 회장은 화상으로 시무식에 참석한 직원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기운은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이다. 힘찬 새해를 맞이하는 성우인들의 무한한 발전을 2016년에도 기대해본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맞이 동영상 촬영,
그날의 생생함을 담다!



굿바이
을미년(乙未年)!



내가 성우의
패션리더!



차장님,
병신년(丙申年)
왔다고 합니다.







남다른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이름을 새기다

공정QC반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는 혁신적 사고, 남다른 책임감과 근성.

이것이 공정QC 반원들의 공통분모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품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품질관리의 최전선 '공정QC'

성우하이텍 공정QC 반원들은 서창공장을 비롯해 고객사 상주 직원까지 총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성우하이텍 내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Q.C는 Quality Control의 약자로 단어 그대로 성우하이텍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관리를 맡고 있다. 품질은 곧 고객과의 약속이자, 성우하이텍의 자부심이다. 그만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다. 단순히 불량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량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것까지가 공정QC의 업무이다. 기본적으로 초·중·종품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초·중·종품 검사표준에는 제품의 기본 자격조건, 고객사 요청 사항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근무자는 검사표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을 검사한다. 마지막 제품까지 검사를 마치면 근무자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 이는 공정QC 분임토의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ISIR(I Sign, I am Responsible)과 같이 '이 제품에 내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검사한 모든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막중한 곳이 바로 공정QC의 자리다. 납품된 제품은 고객사 내 상주하는 공정QC반이 또 검사를 한다. 완성차가 되기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끊임없이
파고드는
‘근성’으로

반복되는 업무에는 ‘근성’이 필요하다.

하나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근성’은 지난 2011년 전국 품질분임

조 경진대회에서 빛을 발했다. 당시 분

임조는 ‘복두칠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했

으며, 그 주역들이 현재 공정QC를 이끌고 있는 권주찬, 장현

성 반장이다. 분임조 ‘복두칠성’은 전국 품질분임조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조회시간을 활용하여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열리는 조회는 현황판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황

판에는 성우하이텍 내 모든 차종, 라인, 불량 현황 등이 꼼꼼

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차

종, 발생 시간, 발생처, 후속 조치까지 기록한다. 분임토의는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장(場)으로 또 다른 혁신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다.

취재 당시, 가장 주된 안건은 신차 라인의 안정화였다. 지난

해 12월 초부터 양산이 시작된 HI 라인은 공정QC반에서 오

랜 시간 공들인 라인이다. 외관 작업이다 보니 요철 찍힘, 굴

곡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으며,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전후

제품을 모두 재검사했다. 공정QC뿐만 아니라 생산기술팀,

보전팀 등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작은 부분

도 놓치지 않았고 때로는 생산방법

의 효율성도 조정하며 신차 라

인의 안정화에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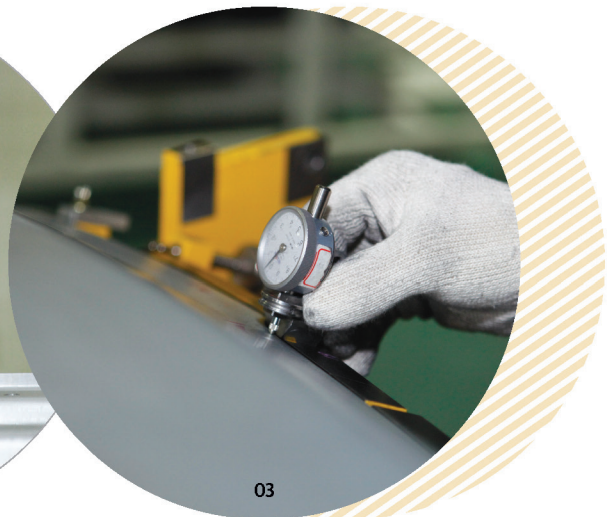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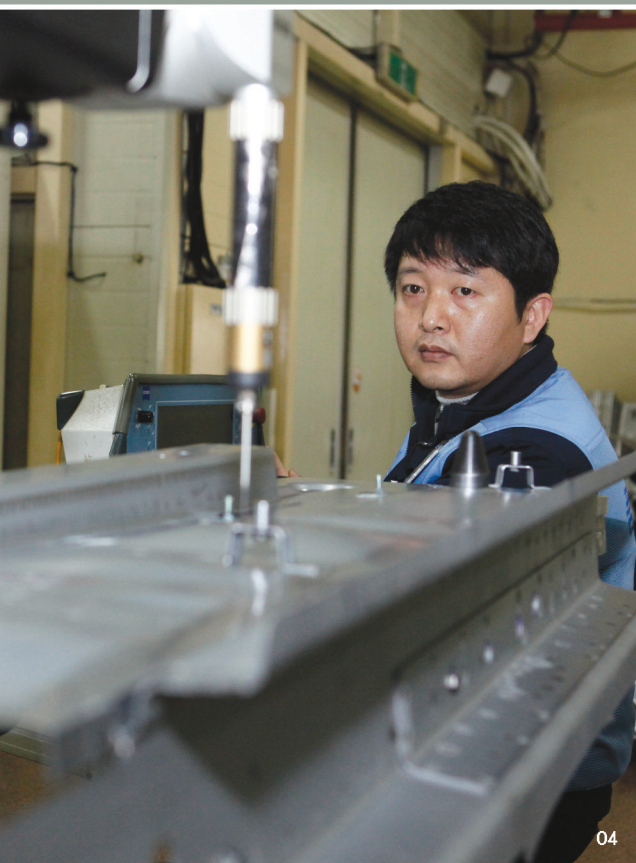
- 01 HOOD 외관 검사 중인 모습
- 02, 04 DH 센타플로워 3차원 측정 장비
- 03 다이얼게이지로 단차 측정 중인 모습



02



03



'소통'으로 일하다

소통은 품질관리 업무의 기초가 된다.

품질관리는 근무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

하고 연구하여 대량 불량을 막고,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 등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

인 목표이다. 경미한 문제는 근무자 개인이 개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반장 혹은 반원들과 협의하여 함께 해결하기도

한다. 해결한 모든 사안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정QC 반원은

물론 현장에서 작업하는 공정책임자들과 공유하여 불량을

사전에 대비하기도 한다.

성우하이텍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공정QC 반원들의 해

외출장도 잦아졌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해외 사

업장에서 체류하며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도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공정QC 반원들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업

무적으로는 분임토의가 있고 사적으로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진다. 이때쯤 모여 술 한 잔 기울이며 회포를 풀기도 하지

만 대부분 함께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떠난다. 업무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공정QC 반원들의 소통지수는 여기서 쌓이

는 게 아닐까 한다.

불량 제로, 최고 품질을 향해

품질은 고객과의 약속이다. 곧 성우하

이텍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최고의

품질이 최선의 영업이다. 품질은 우리

의 인격이고 자존심이다!'라고 외치는

공정QC 반원들. 막중한 책임감으로 뚝뚝

뚫친 그들은 성우하이텍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성우하이텍의 내일을 만날 수 있다. 🚀

Ready, Action



동호회를 찾아서 둥글게 모여 희망을 차올린다, **소울FC**

늦은 오후,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소울FC가 '폭풍 드리블'을 펼치고 있다는 것.

취재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풋살 경기장이 있는 서창공장으로 향했다.

오늘 우리는 풋살 동호회 소울FC를 낚낚이 파헤쳐 볼 생각이다.



소울이 넘쳐서 소울FC!

소울FC는 2013년 10월 창단돼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원년 창단 단장은 조립3반의 김주년 기사이다. 조립4반의 김주년 기사와는 쌍둥이 형제인데, 공차는 것도 똑같이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똑같이 좋아해, 동호회를 만들자고 형제가 의기투합했다. 처음에는 친한 사람들을 모아 공 한번 차자고 계획했었는데, 회사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모으다 보니 동호회 등록 신청서까지 내게 됐다고, 소울FC가 풋살이라는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내 동호회인 만큼 무엇보다 업무가 우선이고, 적은 인원으로도 경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 내에 야간에도 조명이 환한 풋살 경기장이 있으니 굳이 경기장이 완비된 곳을 찾으려 다닐 필요가 없다. 시간 단축도 되고 이래저래 편리한 점이 많다. 여기에 축구보다 부상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만하면 풋살이 더 적합할 수밖에 없다.



동호회 회원들이 말하는
“나에게 소울FC란?”



소울FC, 알면 알수록 즐겁다

현재 소울FC 회원은 20명이 넘는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창공장 옥상의 풋살 경기장은 끈적끈적한 땀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소울FC 회원들의 '소울을 담은 드리블'이 두 시간 가량 신나게 펼쳐진다. 사내 다양한 팀, 반의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모여 공으로 하나가 된다.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인 만큼 서로의 실력을 거르고 경쟁하기보다는 '즐거게'가 포인트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울FC는 회원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문턱 없는 동호회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개월에 한 번 정도 주말에는 코일센타 축구 동호회와 합류하여 사외 조기회와 경기를 한다. 그때는 가족들을 대동하여 온 가족이 소풍 나온 기분으로 풋살 경기를 관전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들은 아빠에게 마음껏 응원을 보낸다. 일석이조다. 소울FC 동호회원들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부딪히고, 비비고, 웃고, 고함친다. 경기가 시작되면 공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그만큼 회원들끼리 예의는 지키되, 격의가 없다. 누구든지 풋살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지 오시라. 둥근 축구공이 있고 소울 넘치는 감성이 물결처럼 일어날 것이다. 

“
풋! 웃음이 새어나온다
살 부비며 땀 흘리며 너와 내가 풋살장에 있다
”



그녀들, 유럽의 심장을 밟다!

여직원 6명이 해외출장을 떠났다. 독일과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해외법인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값진 시간을 보낸 그녀들.

‘성우하이텍의 글로벌한 도전에 끝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

‘Global Sungwoo Hitech’을 직접 체험한 그녀들의 해외출장기, 지금부터 만나보자.

#01 출발, 그리고 다짐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각 본부에서 선발된 저희 6명은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 까지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여직원만으로 구성된 해외출장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첫 시도였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출장자 전원이 모여 업무 계획을 짜기도 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돌아와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걱정도 컸지만 그만큼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회사 관계자분들의 격려 속에 체코 오스트라바로 향했습니다.

#02 체코 오스트라바에 도착

자부심과 긍지를 만끽하다



생산관리팀
이한영 사원



생산기술팀
이지영 사원



개발기획팀
이인혜 사원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으며 방문하게 된 곳은 체코s.r.o(체코법인)와 슬로박질리나(슬로바키아법인). 체코s.r.o는 해외법인 중에서도 큰 규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장을 견학하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최신 시설을 갖춘 모습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체코s.r.o의 규모는 성우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법인 모두 팀원뿐만 아니라 팀 간의 회의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소통 분위기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03 독일 한뎀덴으로 구체화하고 내재화했던 시간들



다음 방문지는 독일 한뎀덴에 위치한 독일WMU(독일법인)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본격적인 현지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스라인, 신규조립라인 등을 견학하기도 하고, 각각 소속된 팀의 업무를 현지 팀원과 함께 근무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막연히 '이러할 것이다'라고 평면적으로 생각했던 업무들이 더 구체화되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또,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재원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도 깊이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04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Let's Go, 성우하이텍!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정들었던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해외법



인을 직접 돌아보고 경험한 순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피곤한 와중에도 쉽게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사이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



보전2팀
편 경 주 사원

원가2팀
박 재 평 사원



품질보증팀
지 나 영 대리

만나다, 울고, 웃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에는 크고 작은 만남이 수없이 교차합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부모님을 만났고, 걸음마를 시작한 뒤부터는 친구들을 만났고,
일을 시작하면서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들과
웃고, 울고, 떠돌고, 때로는 진솔하게, 때로는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한 없이 벅찼고, 떨렸고, 눈부셨던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로 다가오고 다가서며, 때론 내게서 떠나가고 멀어지며,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아무 말 않아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다가오거나 떠나가는,

언제나 그래왔듯 그런 만남은 꼭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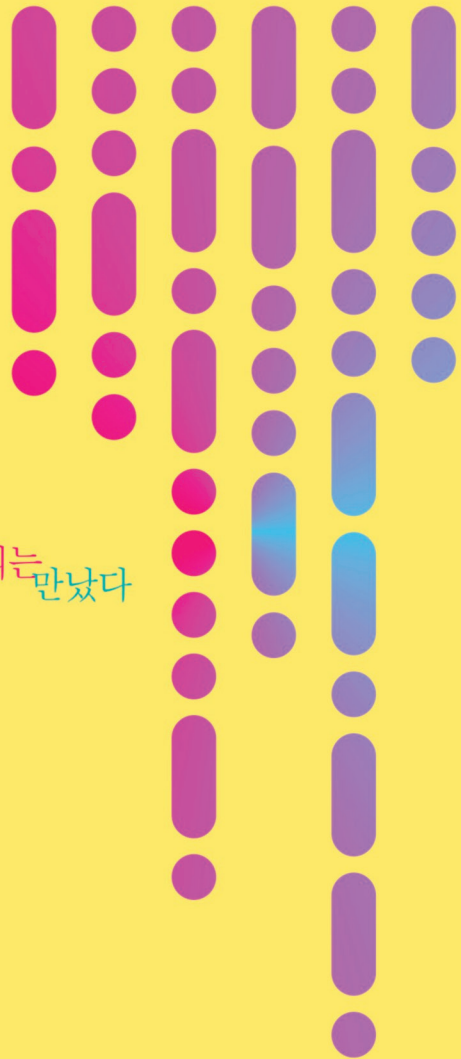
2016년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만날 무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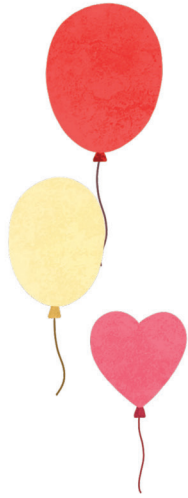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삶의 무대 위에서 내일의 만남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곁의 소소한 이야기, 잔잔한 미소가 번져나가는 이야기,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만났다





새해 첫둥이 성우가족을 만나다

널 보면 심! 쿵! 해!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슴이 벅차올라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만남, 내 아이와의 첫만남!

성우가족에게 2016년 첫둥이가 탄생했다.

온 세상의 모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순간을 들여다보자.

1월 1일 아침 7시 53분, 2016년 첫 해가 떠오르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느 집 아기의 울음소리일까? 주인공은 사상반 박형진 기사의 아들 '심쿵이(태명)'. 아내의 손을 꼭 쥐고 함께 심호흡하며 지켜보던 아빠 박형진의 애타는 기다림 속에 성우하이텍의 식구가 된 새해 첫둥이 심쿵이는 3.2kg로 건강하게 태어나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다.

이제 심쿵이 아빠로 불리게 된 박형진 기사는 2010년 입사한 7년 차 성우인이다. 입사하기 전부터 아내



아들아!
아빠 눈에는 네가 참 사랑스럽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HAPPY NEW YEAR



사상반 박형진 기사와 2016년 1월 1일 태어난 박형진 기사의 아들, 심쿵이!



와 사귀다 결혼을 해서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심쿵이는 결혼 후 3년 만에 가진 아이라 부부에게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심쿵’이라는 태명을 지은 것도 첫 임신 소식에 너무 기쁜 나머지 부부의 심장이 놀라 그만 ‘쿵!’하고 울렸기 때문이라고.

“심쿵이를 낳을 때까지 끝까지 고생해준 아내 덕분에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것 같아서 먼저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박형진 기사는 아내가 심쿵이를 임신한 열 달 동안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졸였다. 그럴 때마다 회사 동료이자 경험자인 선배 아빠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으며 힘을 냈다.

새해 첫날, 모든 이들의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밝게 떠오르는 해처럼 태어난 심쿵이, 심장의 박동소리가 울리는 태명만큼 강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는 박형진 기사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이제야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자꾸만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그, 가족만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만들 예정이란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새해 첫둥이 심쿵이. 박형진 기사 부부에게도 희망의 아이콘이지만, 회사도 성우가족이 된 심쿵이를 지켜 보면서 새해 벽두부터 커다란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에 젖는다. 🌈

성우에서 우릴 부르거든

회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전해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성우인이 된 공정책임자 신입사원들.

공정책임자 신입사원들은 금형개발사업본부에 소속되어 글로벌 금형전문가로 소임을 다하게 된다.

험난하고 치열한 관문을 거쳤던 만큼 그들 모두 성우인이라는 자부심은 더없이 높을 터.

그들이 '진짜 성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책임자 입문과정'이 진행됐다.

회사의 든직한 기둥이 될 그들을 따라가 봤다.

“이제 우리를

‘성우인’이라 불러주오”

공정책임자 신입사원들의 들뜬 발걸음이 부산은행 연수원을 찾았다. 1월 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입문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공정책임자 신입사원 교육은 조직적응, 업무역량강화, 인성함양 등의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인과 회사를 ‘동반성장’의 관계로 인식하여,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기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기간 동안 공정책임자 신입사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고, 본격적인 ‘성우인 되기’에 돌입했다.

합숙교육은 공정책임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기 혁신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신입사원들은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



쟁력이 타인과의 경쟁을 위한 무기가
아닌, 회사와 동료들을 위한 차별적 ‘공
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통
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공정책임자로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직장예절교육 등에 임했다. 또, 한국자동차산업환경을 알아보며 성우인
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도종복 인사정보사업본부장의 특강
도 진행됐다. 도 본부장은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는 회사의 기치에 따라 본인의 자리
에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방법을 함께 고민해나가
자고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1박 2일의 합숙교육을 마친 공정책임자 신입사원들은 1월 7일, 사내 공장 투어와 직무 교육에 참가
했다. 이침 일찍 서창공장과 코일센타를 탐방한 후, R&D센터 상생마루에서 ‘금형개발 프로세스’와
‘생산기술 공법의 이해’에 관한 직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현업 적응을 위한 이날의 교육으로 신입사원
들의 사기는 더욱 고취되었다. 2박 3일간 함께 부대끼며 치열하게 고민한 그들의 힘찬 발걸음이 회사
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기록으로 남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

- 01, 02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 부탁한다. 동기야!”
- 03 도종복 인사정보사업본부장의 특강 “우리는 성우맨!”
- 04 어색함을 털어내는 악수 한마당



아이고, 신입사원들~

만나서 반갑구만, 반가워요!!

2015년 사무직 신입(인턴)사원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4박 5일 동안 입문교육에 돌입했다.

신입사원들은 교육기간 동안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신입사원’이라는 네 글자에서 열정과 패기가 느껴진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이문용 사장 특강

배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과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계발과 좋은 습관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신입사원들의 4박 5일간의 소중한 시간을 응원했다.

이문용 사장은 본격 합숙 교육에 앞서, 신입사원들을 찾아왔다. “회사에 다니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많은 사람에게



02 03

01 다 같이 Let's go! 02 이문용 사장의 특강 “반가워요! 신입사원 여러분” 03 무대에 내 혼을 바치리

끼와 열정으로 표현한

경영철학

어리둥절했지만, 곧 자신들의 끼와 열정에 맞춰 팀을 나눠 퍼포먼스를 구성해 가기 시작했다. 합숙교육 동안 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매일 밤, 호흡을 맞췄다. 제각각이었던 숨소리가 점차 하나의 숨소리로 모아졌다. 신입사원들의 열정은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성우하이텍이 추구하는 ‘창의, 혁신, 소통’이라는 핵심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경영철학을 드라마, 뮤지컬, 트론댄스, 코러스, 스탭 등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퍼포먼스로 무대를 채웠다.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만큼이나 성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

4박 5일의 일정 중 하이라이트는 신입사원들에게 주어진 회사의 경영철학을 녹아낸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과제. 처음 과제를 받은 신입사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창조하는
'이런 만남',

그 의미를 생각하다

때론 어제의 만남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만남이 내일을 결정짓는다.
다양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앞에 펼쳐질
또 다른 의미있는 만남의
예고편이 되어 줄 것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tvN 공식 홈페이지,
헬렌 켈러 자서전

“ 스티브잡스의 상상 속 만남, 소크라테스와 점심식사를 꿈꾸다 ”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는 생전에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BC399)와 단 한 번이라도 점심식사를 할 게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과연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어떤 만남과 대화를 꿈꿨을까?



아마도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애플이 가진 가치 이상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잡스가 남긴 책과 자료, 어록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깊이 감명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잡스가 살아생전에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했다면?

소(소크라테스) : 당신이 나와 점심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요?

잡(스티브잡스) : 변죽이는 아이디어를 얻을까 해서요.

소 : 훌륭한 생각이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질문한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군요.

잡 : 그게 무슨 말인가요?

소 : 제대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점심에 초대했으므로 난 점심을 먹기 위해 당신을 만나러 왔소, 점심 메뉴가 대체 뭐길래 나와 점심을 함께하려는 건지 궁금하단 뜻이요.

잡 : 아, 미처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왔네요.

소 : 훌륭한 답변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메뉴를 생각하고 주문하는 것은 더 훌륭한 답변이 될 듯하오.

어쩌면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득(협상)의 달인이다.



“

평생을 동행한 만남, 헬렌 켈러와 설리번

”

생후 19개월부터 뇌수막염으로 인해 시각과 청력을 모두 잃은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는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장애인이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설리번(Johanna Mansfield Sullivan Macy, 1866~

1936) 이 있었다.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첫 만남을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대조적인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헬렌 켈러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

둘은 헬렌이 7살 때

만나, 70세로 설리번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함께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동행이 진정 위대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이 학위를 받거나 설리번이 헬렌을 가르쳐서 성공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유명세를 타며 둘의 사이를 왜곡하는 많은 오해와 모함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

과거와 현재의 만남, 세대를 아우르는 복고 열풍

”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를 시작으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까지, 과거를 불러내어 현재와 만나는 복고 열풍이 그야말로 대세이다. 희미해진 추억의 시절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다가오고 동시대를 보냈던 이들과 공감한다.

그 시절의 음악을 듣는다는 건,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응팔에서 나왔던 가요는 한 동안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어디 노래뿐인가, 과자도 그때 그 시절 포장으로 한정판을 출시했고, 국내 개봉 30주년을 맞은

‘영웅본색’과 1990년대 ‘러브레터’를 포함해 옛 영화들이 연이어 재개봉했다. 심지어 최신 제품이 준비한 가전 제품까지 복고 열풍이다.

우리는 왜 복고에 열광할까? 그때 그 시절은 덜 세련되었지만 따뜻하다.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마저도 아우른다. 과거와 만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론 큰 힘이 되어준다. 🚀

만남이 운명이다

먼저 퀴즈 하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장에는 알파벳 'F'가 몇 개 있을까요?

"FEATURE FILMS ARE THE RESULT OF YEARS OF SCIENTIFIC STUDY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YEARS."

3개? 정답은 6개입니다. 3개는 바로 <O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한가요? 이런 것을 심리학 용어로 선택적 인식, 또는 부주의 맹목성이라 말합니다.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 다른 것은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왜 '만남'을 주제로 쓰는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인맥관리, 인간관계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중요성

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귀에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삶의 여정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첫째, 사람이 운명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는 성공과 행복입니다. 과연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회학자 솔라 풀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 3,500명 정도를 중요하게 알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일정





글 양광모

휴먼네트워크연구소장,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SK텔레콤노동조합위원장, 한국기업교육협회장, 청경장학회장을 역임했다. 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 인데일리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비상>, <만남의 지혜>, <초대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통>, <열림>, <갈등, 게임처럼 즐겨라> 등이 있다.

기간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은 인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인맥관리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의 운명.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기회의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 둘째, 인맥관리는 진심과 정성이다

제가 사람들로 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인맥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인맥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자신이 먼저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배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클린턴에게 적대적이던 정치인들이 그와 일대일로 독대를 하고 나면 매우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들은 언론사 간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20분 동안 클린턴과 일대일로 만나고 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클린턴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20분 동안 클린턴은 이 세상에 마치 나밖에 없다는 듯이 대해줬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나 뿐이라는 듯이...” 이처럼 클린턴이 적까지 자기편으로 만드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신념 ②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과 정성으로 대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동료들을 진심과 정성으로 대하고 있나요? 좋은 인맥을 만드는 왕도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으로 대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셋째, 인맥은 인삼이다

한 취업전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 인들은 인맥관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97.8%)고 인식하지만 인

맥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5.9%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표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인맥을 만들지 못하게 되죠.

①1년, 1개월 단위로 새로 만들 인맥의 목표를 숫자로 정하라. ②매월 1~2일을 네트워킹 데일로 정하라. ③매일 연락할 문자, 메일, 전화 건수를 정하라.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품을 파십시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고민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멘토, 친구(동반자), 후배의 유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꿈, 취미와 관심사에 연관 지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로 시간과 공간,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인맥관리 채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연락을 지속하면서 식사를 함께하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인간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꾸준히 인맥관리를 실천해 보세요, 좋은 인맥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심과 정성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Collaboration* 역대급 콜라보를 시작하다

어릴 적 '미래의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멋진 자동차를 탄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이 자동차는 세상에서 단 한 대뿐인 자동차로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늘을 날고, 때로는 물속이나 땅속으로의 여행도 가능하다.

혹한이든 혹서든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다.

정말 똑똑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자동차다.

현실에서도 그런 자동차를 위해 IT(Information Technology)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금세기 최고의 콜라보가 될 전망이다.



CAR × IT = SMART CAR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는 이제 미래형 IT기술과 융합하여 '스마트카'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이 손만 터치했을 뿐인데 자동차 문이 저절로 열린다.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를 향한다. 이동 중에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Wi-Fi 무선통신을 통해 각자의 위치정보와 교통상황, 위험 정보 등을 주고받기도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스스로 주차까지 하는 이른바 '똑소리 나는 자동차'가 스마트카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연관 업계들까지 경쟁적으로 스마트카 생산에 상당한 비용과 공을 들이고 있다. 스마트카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기술은 이미 개발되었다. 남은 과제는 분야별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앞다투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옮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고자 한다. 인간의 감성까지 자동 인지하고 도로주행 시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해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로 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뻗속까지 SMART!

'융복합 신기술'이 단연 화두인 만큼 자동차 산업과 타 산업간 콜라보도 활발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개최된 'CES 2016'(세계최대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는 가전쇼가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의 격전지로 탈바꿈했다. 이번 CES 2016에 전시된 자동차들은 전기차 위주로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이들 자동차 중에는 집안에서 TV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TV로 검색한 지도 정보를 차로 보낼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집 문이 열리고 전등을 켜기도 하며, 집안의 냉난방 온도 조절까지 가능했다.

이 같은 기술 발전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스템을 탑재한 IoV(Internet of Vehicles) 형태의 자동차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거대한 스마트 디바이스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기까지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기술은 뻗속까지 'SMART'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고 보면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 등의 개별산업이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까지 허물어뜨리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이어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었던 자동차를 수삼 년 내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화 '트랜스포머' 속의 로봇 변신 자동차와 영화 '백투더퓨처' 속의 타임머신 자동차까지도. 

언젠가 겪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상속** 문제!

기초적인 지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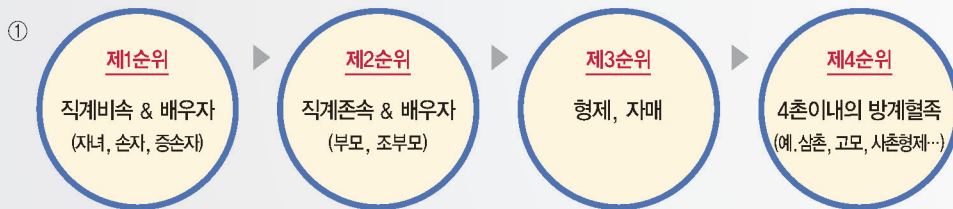
신문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종종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나 법적분쟁을 간접적으로 접하실 겁니다.

대기업, 부자들 사이에선 자주 일어나는 있는 일이지? 남의 일 같지만 혹시 소액이라도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 상속순위와 상속(금액)비율, 유류분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

상속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민법제1073조), 유언이 없는 때에는 민법상 순위에 따른다.

(2) 상속순위 (민법제1000조)



② 4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지분 (민법제1009조)

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4) 유류분 (민법제1112조, 민법제1117조)

- ① **의의**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과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② **유류분 대상** :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③ **유류분 비율**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 : 피상속인이 유언함으로써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유류분에 미달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속의 개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사례로 풀어보는 Q & A

Q A가 유언으로 전 재산 9,000만 원을 배우자(B)에게 1,000만 원, 장남(X)에게 6,500만 원, 차남(Y)에게 1,000만 원, 장녀(Z)에게 500만 원으로 유산을 물려줬다. A의 상속 분배에 불만을 품은 상속인 B, Y, Z가 장남(X)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낸 경우,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그 청구금액의 범위는?

A

상속순위		상속금액 ^㉔ (유언)	법정상속분 ^㉑ (1.5:1:1:1)	유류분 ^㉒ (법정상속분×1/2)	반환청구금 ^㉓ (㉔-㉑)	최종상속금액 ^㉕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B)	1,000	3,000	1,500	500	1,500
	장남(X)	6,500	2,000	1,000	-	5,500
	차남(Y)	1,000	2,000	1,000	0	1,000
	장녀(Z)	500	2,000	1,000	500	1,000

∴ B, Z는 장남(X)에게 반환청구금(㉓)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 청구할 수 있고, 각각 최종상속금액은 ㉕와 같다. 🚀



통증없이 피어나는 풍경을 보다

화가 정철교

정철교의 그림은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이면서 타인이고, 자아이면서 타자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고 일러주고 있다.

때로는 자외선에 입은 화상 자국처럼 벌겋거나 꺼먼 얼굴로,

혹은 세상의 모든 고장 난 풍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지러지지는 않았어도 무척 어색하게 웃으며,

때론 고독하거나 오만하게,

때론 반항하거나 타협하며,

때론 무덤덤하거나 비굴하게,

그런 표정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그려온 것이다.



그린다는 것의 전율

화가 정철교가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술특기생은 모두 실기시험을 쳐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미술특기생이 아닌 정철교는 미술부에 들어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고등학교에 진학 후 미술부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그의 그림 인생이 시작됐다. 그렇게 그림에 대한 열망은 점차 커져갔다. 하지만 가혹한 가난이 발목을 잡았다. 대학에 합격했으나 입학금이 없어 결국 입학을 포기해야 했고, 앞친 데 뒷친 격으로 부친이 돌아가시는 악재까지 겹쳤다. 그림에 대한 꿈을 쉽사리 펼



칠 수 없는 여건에 짓눌린 그의 절망은 그를 방황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끝내 그림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부산의 한 미술 평론가의 화실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다. 화실 학생들이 버린 캔버스에 덧칠을 해가며 그림을 그렸다.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은 거의 사치였다. 추운 겨울엔 온몸으로 찬바람을 맞으며 집에서 화실까지 걸어 다녔다. 방위산업체 근무로 군대 생활을 시작했고, 건강은 악화됐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친구들에게 차비를 빌리러 다녔고, 친구들이 쓰지 않는 물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

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깊디깊은 고독의 심연 속에서도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아 부었다. 비록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진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투영했다. 그에게 기댈 것이라곤 오로지 자신이 그리는 그림과 학생들뿐이었다. 그렇게 한고비쯤 넘겼을 때 다시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한다. 서른이 넘는 나이였다.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사범대를 선택했다. 한때 조각에 몰두해 네 번의 개인 조각전을 열기도 한 그는 '장르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편협하다'고 말한다.



내가 나를 그리다

정철교는 조각을 시작하며 양산시 매곡의 빈 골짜기로 홀려 들었다. 매곡은 정철교에게 온전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 준 공간이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공간을 '자궁'이라고 표현했다. 그 안에서 '나'를 좀 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에서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자화상은 걸로 드러난 자신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기실 그는 자신의 자화상이 그의 예술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년 시절에 그렸던 자화상에는 문학청년 같은 아주 맑은 눈빛을 가진 그가 있고, 아주 힘든 시절에 그린 자화상에는 눈, 코, 입이 없다. 때마다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마치 깨달음을 향한 '면벽'과도 같았고, 그 깨달음의 응어리가 결정체로 남은 '사리'와도 같았다. 그렇게 매곡에서의 10여 년을 보낸 뒤 작업공간을 울산시 서생면의 바닷가로 옮겼다. 새 터를 마련하고 직접 그곳을 담

으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하나하나 설계했다. 사방으로 창을 내어 언제든지 바다를 볼 수 있게 했다.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인다. 낮에는 낮이라, 밤에는 밤이라, 때로는 온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던 그를 밖으로 불러냈다. "내 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지금 사는 곳이고, 눈을 떠서 보는 곳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사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리자'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철교는 서생으로 둥지를 옮긴 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살고 있는 울산 서생면의 골매마을과 신리마을은 사실 신고리원전 건설로 사라지는 곳이다. 그는 그곳의 풍경을 그려내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그림에 담긴 노랑과 빨강, 파랑으로 덮인 풍경들은 찢눌처럼 활기차게 혹은 담담히 현실을 말할 뿐이다. 기록이라면 기록이고 증거라면 증거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캔버스에 모이고 생겨나고 피어나는 것

“일상에서 흔히 접하던 것도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일상의 흔한 눈길과 전혀 다른 눈길로 보면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못 봤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깃거리가 없는 공간은 없고, 사연 없는 물건도 없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그것을 담아낼 뿐이죠.”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독창적인 소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흔한 것에서, 못 보던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 발견된 이야깃거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그는 시간이 아깝다. 오직 그림 그리는 일에만 몰두한다. 캔버스에 모이고 생겨나고 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 없이 좋다는 뜻이다. 그만큼 그림을 부지런히 그렸고, 작년에만 3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쉼 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그는 ‘한 해에 적어도 개인전 한 번은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화가 정철교는 올해 좀 더 특별한 전시회를 구상하고 있다. 살고 있는 서생면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삼으려 한다. 월내역, 은행, 면사무소, 우체국, 그리고 자주 가는 횡집도 전시 공간으로 해서 서생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뽕밭 밭에는 작품이 있는 곳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할까 생각 중이다. 보물찾기처럼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싶다. 더불어 개인 미술관 설립도 생각하고 있다. 서생에 미술관을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의미를 생생하게 담아내려 한다. 여기엔 이웃도 있고 바다도 있을 테니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는 그만인 셈이다. 게다가 자신의 작품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이후 그림이 인생이었고, 예술이 삶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그림이 좋았던 풋풋한 소년의 그때 그 눈빛이 지금 그의 삶과 작품에 오롯이 옮겨와 있다. 🌈



정 철 교 (鄭哲敎, Jeong Chul-Kyo)

- 1953년 경북 감포생
- 부산 동래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 1990 제1회 정철교 조각전(부산, 갤러리 누보/밝은 터 갤러리/서울, 나우 갤러리)
- 1991 제2회 나우 갤러리 기획 정철교 조각전(부산, 갤러리 누보/서울, 나우 갤러리)
- 1992 제3회 정철교 조각전(부산, 갤러리 누보)
- 2001 제4회 정철교 조각전(웅상아트센터)
- 2003 제5회 정철교 그림전(웅상아트센터)
- 2009 제6회 '내가 나를 그리다' 전(갤러리 이듬)
- 2011 제7회 소울아트스페이스 기획 '내가 나를 그리다' 전
- 2012 제8회 갤러리 이듬 초대 '정철교 그림' 전
- 2013 제9회 부산프랑스문화원 초대 '고장난 풍경' 전
- 제10회 갤러리 이듬 초대 '열꽃이 피다' 전
- 2014 제11회 갤러리 아리오소 초대 '뜨거운 꽃' 전
- 2015 제12회 마린 갤러리 초대 '고장난 풍경' 전
- 정준호 갤러리 초대 '붉은 여름' 전
- 제13회 부산KBS방송총국 개국 80주년 기념 '정철교 초대전(부산KBS방송총국)

단체전

기류전 포인터 현대 미술회전, 한국 미술 청년 작가회전, 서울 39인의 방법전, 아시아 현대 미술제, 부산 청년 비엔날레, 서울부산대구전주 현대 미술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 '물성과 의미 사이에서' 전, 프랑스 까르소 미술관 기획 On The Side of the Light 프랑스 전, 바다미술제, 아시아 현대 조각전, 오늘의 지역 작가전 외 다수

동해남부선, 아침을 여는 기차여행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동해남부선 옛길은 많은 사람의 추억을 머금고 있다.

이곳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조차 옛 철길을 걷노라면 아련한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지금은 폐선이 된 동해남부선 옛길부터 시작되는 동해남부선 기차여행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어 더 정겨움을 느끼게 되는 여행 코스이다.





추억보다

추억 같은

동해남부선 옛길

기차길 동해남부선 중 해운대역과 송정역을 잇는 구간이 2014년 12월에 이설 후 청사포 인근의 바다 절경을 즐기며 철길을 걸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미포는 동해남부선 옛길 트레킹의 시작점이다.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청사포에서 구 송정역까지 각각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이다. 새로 이설된 신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는 시간과 일정을 맞추어 움직이면 좋다.

동해남부선 옛길을 들어서면 별다른 기억이 없어도 마치 특별한 추억 속에 서 있는 듯하다. 미포에 들어서면 기차길에 인접한 집들과 기차길 옆에 달리는 미역들이 보인다. 철길은 역할을 다 했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그마한 텃밭과 고래벽화의 아기자기함이 얼굴도 모르는 이곳 주민들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내륙 쪽으로 꺾이는 코스를 지나니 태양은 등 뒤로 자리를 옮긴다. 지나온 풍광

0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 01 동해남부선 옛길에서 바라본 해안가
- 02 미포에서 시작되는 동해남부선 옛길
- 03 청사포의 등대



02



03



이 궁금해 잠시 돌아서자 강렬한 태양은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때리며 한 순간 아찔함을 준다. 외르소(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가 태양 아래서 이런 아찔함을 느꼈을까?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상상력이 더해져 재미난 여행을 예고한다. 기차여행은 혼자도 좋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더 좋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파트너가 있다면 옛길 코스는 나와 그를 너나들이로 이어준다.

조금 더 가면 달맞이재라고 불리는 짧은 터널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만들고 간 흔적이 달맞이재 터널의 벽에 새겨져 있다. 다시 걷다 보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포토존이 있다. 수많은 바람개비로 만들어진 태극기 모양이 이색적이면서도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청사포에 들어서면 철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에 유명세를 꽤 타고 있는 이 작은 포구의 정겨운 풍경을 마음에 담아가자. 옛길의 종점인 송정역은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고 역사 안은 미술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정역사(松亭驛舍)와 창고, 4868㎡ 대지, 역사를 중심으로 좌우 철로 150m 등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역사는 1940년 12월에 지어져 그 역사적인 가치를 알 수 있다.



04



05

기차는

아침햇살 속으로

구 송정역에서 신 송정역까지 거리는 걸어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간과 체력의 안배를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기장 좌천역 혹은 월내역으로(약 30분 소요)간다. 우리는 기장 좌천역에서 내렸지만 월내역에서 내리는 것이 다음 코스인 간절곶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좌천역도 1934년에 시작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좌천역사와 일대를 잠시 둘러보고 간절곶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다. 간절곶까지는 약 15분이 소요된다. 간절곶은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있다. 이곳에서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해를 맞이하는 것을 추천한다. 뜨거움이 차가운 기운을 덮쳐듯 어느 순간 해가 떠오른다. 수평선을 뚫고 오메가 모양을 하며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 앞에서 조물주에게 경외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월내역으로 돌아와 태화강을 향해 다시 기차로 이동한다. 첫 번째 코스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신화마을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익은 작품 하나가 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인데 자세히 보니 기계적인 이미지가 더해진 재해석된 작품이다. 어느 집의 벽은 '앤디워홀'의 작품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 마블린 먼로가 웃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역 앞의 자동차박물관에 가보는 것도 좋다. 1990년대 초 이견희 회장이 처음 구입해서 유명세를 얻은 '포르쉐964'를 비롯해서 BMW사가 국민보급형으로 1955년도에 내놓은 삼륜 자동차 '이세타'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성우하이텍과 처음 인연을 맺은 '스텔라'도 있다. 이세타를 비롯한 몇몇 자동차는 시승이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여행을 해보았다. 2016년도를 시작하며 새로움과 다짐을 가지기 위해 힐링 여행은 동해남부선 기차여행을 추천한다.🚆



06



07

- 04 간절곶의 일출은 사람들의 꿈을 담는다.
- 05 아기자기한 울산 신화마을의 구멍가게
- 06 간절곶에 설치된 병신년 맞이 설치물
- 07 신화마을은 지역 예술가들의 지붕없는 미술관이다.

2016년도 시무식 개최



당사는 1월 4일 국내 및 해외 13개 사업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한 가운데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자기 보람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가치”라고 당부했으며, “스마트 공장 실현으로 원가경쟁력 회복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문샷싱킹(Moon shot thinking)’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자”고 격려했다.

4억불 무역 수출탑 수상



부산 지역의 우수 수출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2015 부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당사가 4억불 무역 수출탑을 수상했다. 12월 10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성우하이텍 김진욱 전무가 산업포장을, 아산성우하이텍 김진수 차장이 무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부산일보 안병길 대표이사 사장, 서창공장 방문



부산일보 안병길 대표이사 사장은 11월 10일 당사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차체부품이 생산되는 첨단 생산라인을 탐방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일보가 지역 최고의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안병길 사장은 “품질이 곧 영업이라는 말을 본받아 부산일보도 품질 높은 신문을 만들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2015년 정년퇴임식 개최



당사는 정년을 맞은 공정책임자 6명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2015년 정년을 맞은 성우가족은 금형반 최용범 기장, 수입검사반 최창학 기장, 조립1반 최기화 기장, 밤바조립반 고장철 기장, 물류1반 이덕일 기장, 조립4반 정정옥 기장 등 6명이다. 당사는 1995년에 정년 60세를 조기 도입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고용 문화를 정착해왔다.

2016년 본부 목표설정 워크숍 개최



GREAT COMPANY 성우하이텍을 구축하기 위한 본부 목표설정 워크숍이 당사 R&D센터 글로벌품질확보동 소동마루에서 12월 11일부터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본부별 핵심과제 및 사업부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였으며, '창의, 혁신, 소통'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사무직 신입(인턴)사원 과제발표회 개최



2015년 사무직 신입(인턴)사원 과제발표회가 1월 8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열렸다. 성우하이텍 및 아산성우하이텍에서 근무할 새로운 성우가족은 열정과 패기의 무대를 선배사원에게 선사했다. 이명근 회장은 신입(인턴)사원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며 "지금의 열정과 패기를 잃지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려 쏘아내 달라"며 당부했다.

금형·공법 공정책임자 입문교육 실시



새롭게 성우가족이 된 금형·공법기술 공정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입문과정 교육이 1월 5일부터 3일간 부산은행연수원과 R&D센터 글로벌품질확보동 상동마루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사원들은 이번 교육으로 성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갖추는 준비를 마쳤다.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 감사패 전달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12월 30일 백혈병소아암과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왔다. 당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금연캠페인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조성한 후원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전달했으며, 이 기금은 이동골수이식과 희귀난치병 치료비에 쓰였다.

김삼준 부산출입국관리소장, 서창공장 방문



11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삼준 소장이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했다. 지난 2009년 5월 부산지역 재한외국인의 사회 통합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한 법무부 산하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정기이사회를 찾은 김 소장은 센터의 주요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위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당사는 11월 27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주관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지역의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당사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경영 및 시간 선택제, 스마트 워크 등 유연근무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당사는 12월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건강증진 활동 추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당사는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조직 차원의 개선활동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아산성우하이텍,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아산성우하이텍(공장장 김중범 이사)은 12월 30일 선장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500만 원을 온재학 면장에게 전달했다. 후원금은 선장면 행복키움추진단에 기탁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지원과 물품 후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성우하이텍 사가(社歌)



행복의 기운을 나누다

사가를 부르며 성우가족들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회사와 가정 곳곳으로
번져나갑니다.
소통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성우하이텍은 성장합니다.

* 독일 뮌헨 남펜부르크 성
(Schloß Nymphenburg in Munich,
Germany)

♩ = 85

열린 마음으로— 두 하— 나 되 어 서 로 사랑 하며 아 깨 는 사

6 령 과 믿 음 으— 로 의— 지 어 며 맘 께 하 는 성 우 되 어 오 성

10 우 하이텍 한 마음 으로— 감 동 을 만들— 어 가 는 곳 성

14 우 하이텍 한 가 족 으 로— 웃 음 과 행 복— 넘 지 는 곳 더

18 높 게 더 낮 게 더 빠 르 게 끝 없 이 비 상 하 라 멀 리 We

22 are the one 모두 손 잡고 세 로 운 도 악 을 꿈 꾸 며 성 우 하— 이

26 텍

31 우 리 는 모두 성— 우 의 꿈 과 미 래 외 망 과 용 기 가 넘 지 는 열

36 정 과 맘 께 라— 면 다— 가 오 는 미 래 는 우리 성 우 의 것 성

40 우 하이텍 성 공 을 향 해— 세 로 운 도 전— 팔 지 는 곳 성

44 우 하이텍 세 계 를 향 해— 눈 부 신 위 상— 높 이 는 곳 더

48 높 게 더 낮 게 더 빠 르 게 끝 없 이 비 상 하 라 멀 리 We

52 are the best 모두 다 함 께 세 로 운 도 악 을 꿈 꾸 며 성 우

56 하 이 텍



UNTERNEHMENSLIED

Wir vereinigen uns mit offenen Herzen
Wir kümmern uns umeinander
Lasst uns mit Liebe und Vertrauen
ein gemeinsames Sungwoo werden.
Sungwoo wird für dich da sein.
Sungwoo Hitech, ein Ort, an dem man gemeinsam
Herzen bewegt.
Sungwoo Hitech, ein Ort, an dem als Familie Freude
und Glück überschäumen.
Noch höher, noch niedriger, noch schneller fliegen wir
endlos weit in die Ferne.
We are the one, Hand in Hand träumen wir von einem
neuen Sprung nach vorne, Sungwoo Hitech.
Wir sind alle der Traum und die Zukunft von Sungwoo.
Wenn wir mit Hoffnung und unerschrockener Leiden
schaft vorangehen, gehört die Zukunft uns Sungwoo.
Sungwoo Hitech, ein Ort, an dem man für den
Erfolg Herausforderungen annimmt.
Sungwoo Hitech, ein Ort, an dem man von der Welt
Anerkennung finden kann.
Noch höher, noch niedriger, noch schneller fliegen wir
endlos weit in die Ferne.
We are the best, gemeinsam träumen wir von einem
neuen Sprung nach vorne, Sungwoo Hitech.



ENG. SUNGWO HITECH Company Song

BECOMING THE ONE WITH OPEN HEARTS,
WE CARE FOR AND LOVE WITH EACH OTHER,
COUNTING ON EACH OTHER IN FAITHER AND LOVE,
SUNGWOO'S GONNA BE THERE FOR YOU,
SUNGWOO HITECH, WITH ALL OF US,
WHERE'S MAKING GREAT IMPRESSIONS,
SUNGWOO HITECH, IN ALL OF US,
WHERE WE ARE HAPPY AND WE SMILE,
MUCH HIGHER MUCH LOWER MUCH FASTER,
FLY TO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E ONE HOLDING OUR HANDS,
DREAMINIG TO FLY HIGH UP SUNGWO HITECH,
WE ARE THE PROMISING FUTURE OF SUNGWO,
FULL OF HOPE AND FULL SPIRIT,
IF THERE'S A PASSION IN ALL OF US,
GREAT FUTURE WILL BE IN US,
SUNGWOO HITECH FOR US TO SUCCEED,
WHERE WE CAN TRY SOMETHING
SUNGWOO HITECH FOR US TO BE
IN THE WORLD PLACING US UP HIGH,
MUCH HIGHER MUCH LOWER MUCH FASTER,
FLY TO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E BEST GOING TOGETHER,
DREAMING TO FLY HIGH UP SUNGWO HITECH,

미래를 만나다

수많은 만남 속에 너와 내가 만났듯,

서로에게 스며들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우리가 만나 만들어낼 힘,

창의와 혁신과 소통의 새 길로 향합니다.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R&D Center :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tamping Mould Factory :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Jeonggwan Factory : 2-9, Nonggong-gil, Jeonggwan-eup, Gijang-gun, Busan, Korea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Jisa Factory :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